

재정경제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

- 한국 IDB 협력 패키지 후속 조치 및 AI Hub 설립방안 논의
- 신탁기금·협조융자·민간투자·핵심광물 등 중남미 협력 확대 추진

재정경제부(수석대표 : 강윤진 개발금융국장)는 5.21(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개발은행(IDB) 대표단(수석대표 : Mr. Andre Soares, IDB 총재 비서실장)과 한-IDB 연례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는 한-IDB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우선, IDB측은 한국이 제공한 재원이 중남미지역의 인프라, 제도개선, 디지털, 에너지, 혁신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한국 인력의 IDB 진출전략 등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우리측은 중남미지역의 인공지능, 디지털, 에너지 등 분야의 수요와 한국기업의 기술·금융 역량 간 상호보완성이 큰 만큼, 이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체결된 AI Hub* 관련 인공지능·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고, AI 관련 사업 발굴 등을 위한 향후 협력체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AI Hub : 한국의 AI·디지털 역량과 IDB의 중남미 개발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중남미 국가의 AI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민간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오는 11월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AI 기술력을 갖춘 한국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가시화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IDB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과 인재의 중남미 진출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8720)
	국제기구과	담당자	사무관	김아연 (ayeoni@korea.kr)